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2014년 6월 15일 주일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린도후서 13장 11절)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이러한 문구를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말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해집니다. 올해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가 원주민들에 대해 교회가 범한 과오를 고백하며 참회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회하였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각자에게 와 닿았는지 돌아 볼 때가 있습니다.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을 맞아, 원주민 기숙학교로 인해 아픔을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해 가족의 품을 떠나 기숙학교로 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수 많은 어린이들을 기억합니다. 현재 여러 원주민 공동체는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숙학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실종되거나 사망한 500여명 이상의 성인 여성·여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상실되고 깨어진 많은 소중한 것들에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한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한 답을 구하며 그 끝이 있기를 바라는 가족들, 친구들과 여러 공동체를 우리 마음으로 끌어 안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원주민 기숙학교 제도로 인해 일어난 그 형언할 수 없는 폐해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것은 이제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적 집단학살이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을 맞아 힘겹고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원주민 기숙학교의 아픔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원주민 기숙학교가 남긴 영향이 아직도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여러 행사가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어린 사랑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2014년 6월 15일 주일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린도후서 13장 11절)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이러한 문구를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말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해집니다. 올해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가 원주민들에 대해 교회가 범한 과오를 고백하며 참회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회하였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각자에게 와 닿았는지 돌아 볼 때가 있습니다.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을 맞아, 원주민 기숙학교로 인해 아픔을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해 가족의 품을 떠나 기숙학교로 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수 많은 어린이들을 기억합니다. 현재 여러 원주민 공동체는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숙학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실종되거나 사망한 500여명 이상의 성인 여성·여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상실되고 깨어진 많은 소중한 것들에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한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한 답을 구하며 그 끝이 있기를 바라는 가족들, 친구들과 여러 공동체를 우리 마음으로 끌어 안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원주민 기숙학교 제도로 인해 일어난 그 형언할 수 없는 폐해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된 것은 이제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적 집단학살이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의 날 기념주일을 맞아 힘겹고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원주민 기숙학교의 아픔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원주민 기숙학교가 남긴 영향이 아직도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여러 행사가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어린 사랑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자비의 하나님 원주민 기숙학교로 인해 아픔을 겪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깨어진 모습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마주드립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감싸 안아 주소서.

정의의 하나님, 지도자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지혜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안에 자라나는 공평과 존중과 정직과 새로운 소망이 모든 공동체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을 참된 평화로 채우소서. 지혜와 힘과 사랑을 늘 얻게 하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진리의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요한복음 8장 32절). 수치와 분노와 아픔을 갖게 하는 기억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치유와 화목과 용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참된 용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amiegumming (Kenora Fellowship Center, Kenora, Ontario) 실행 지도위원  
Yvonne Bearbul

\*Anamiegumming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하는 7가지 원주민 사역중 하나이며  
Yvonne Bearbull은 the Birdtail Dakota Nation 출신입니다.

##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자비의 하나님 원주민 기숙학교로 인해 아픔을 겪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깨어진 모습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마주드립니다.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감싸 안아 주소서.

정의의 하나님, 지도자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지혜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안에 자라나는 공평과 존중과 정직과 새로운 소망이 모든 공동체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을 참된 평화로 채우소서. 지혜와 힘과 사랑을 늘 얻게 하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진리의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요한복음 8장 32절). 수치와 분노와 아픔을 갖게 하는 기억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치유와 화목과 용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참된 용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amiegumming (Kenora Fellowship Center, Kenora, Ontario) 실행 지도위원  
Yvonne Bearbul

\*Anamiegumming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하는 7가지 원주민 사역중 하나이며  
Yvonne Bearbull은 the Birdtail Dakota Nation 출신입니다.